제1강: 소은 박홍규의 철학 입문

◆ 1교시: 소은 박홍규는 누구인가

▲ 소은 박홍규에 대하여

박 선생님의 책 순서보다는 철학사 순서에 따라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원론적인 것,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든가 희랍철학의 특징을 다른 것이라든가. physics, 자연철학 등.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플라톤(Platon, BC 428/427~BC 348/347) 아테네에 관한 게 가장 많죠? 플라톤에 관한 것을 우선 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와 같은 그 뒤의 사람들. 그것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베르그송(Bergson, 1859-1941)을 보고. 이 분들을 철학사 순서에 따라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글은 아마 제가 메일에 공지를 했던 것 같은데. 3권에 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78쪽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지적인 산물들이 있죠.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철학, 사상 ,종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서구 존재론사. 서구 존재론사라는 이 분야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처럼 깊이가 있고 난해한 것은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웬만한 것은 2,3년 하면 대충 보이는데 서구 존재론사 같은 경우는 깊은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철학 하는 방식을 보면 대개 서구 존재론사의 한 가닥을 잡고 공부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전 철학을 하고, 헤겔(Hegel, 1770~1831) 을 하고 베르그송을 하고 하이데거(Heidegger, 1889-1976)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구 존재론사라는 거대한 갈래의 한 자락을 잡고 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철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의 성격을 띱니다. 한국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의사종교 같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죠. 의사종교적인.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학문을 한다기보다는 서구 존재론사의 굵직한 봉우리 하나를 붙들고서 반(半) 종교적으로 공부하는 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라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상당수의 양태(樣態)들이죠.

그래서 학문 하는 것인지 종교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많죠. 한국 같은 경우엔 그런 것을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언어 문제이죠. 플라톤을 하려면 희랍어를 해야 하고.

www.artnstudy.com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헤겔을 읽으려면 독일어를 봐야 되고. 베르그송을 읽으려면 또 프랑스어를 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중일의 철학이 이렇게 서구 철학처럼 거대한 높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의 5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자를 읽으면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실제로. 같은 종류의 언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희랍어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고요. 학문을 배우듯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서양 존재론사에서 다루어지는 여섯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이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먹먹한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지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또 서양 존재론사입니다. 어떤 거대한 벽처럼 서 있는 것이 서양 존재론사입니다.

동양은 그래도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나은데, 이것들은 언어가 다 다르니까요. 물론 한자도 (나라에 따라) 쓰임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박홍규 이 분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서 서구 존재론사를, 마치 종교를 믿듯이 어느 한 자락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자기 눈으로 굽어본 유일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 박홍규 선생을 매개로 해서 서구 존재론사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박홍규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perspective가 있죠. 한계도 있고요. 제가 이따금씩 비판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박홍규를 존경하면 그것도 또 안 되겠죠.

아무튼 동양사람으로서 희랍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영어 등을 전부 다 익히고, 더구나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마스터한 매우 희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박홍규라는 사람의 학문적 높이를 타고 넘어간다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요.

박홍규 이 분은 근대 부분이 좀 빠진 측면은 있습니다. 이분이 근대 철학을 굉장히 부정적인 철학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근대 철학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철학으로 바라보았죠. 어쨌든 서양 철학을 졸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굽어본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을 통해서 서구 존재론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철학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여러 철학이 있죠. 왜 그렇게 여러 철학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예컨대 미

www.artnstudy.com

국 물리학, 일본 물리학,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죠.

미국 사회학, 일본 경제학.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데요. 철학 같은 경우에는 쓰죠. 유럽 철학, 동양 철학 등.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요. 언어를 떠나서는 말이죠.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담론이 어떤 분야에서는 법칙성이 없거나 약하죠. 전혀 없진 않죠.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히 인문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성을 갖고, 과학자들이 판단하듯이 그렇게 쉽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느냐, 또는 검증할 수가 없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홍규 이분은 철학은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동기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철학의 형태만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철학 하는 주체, 사유하는 사람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빼고 오로지 사유 자체만을 갖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전자는 insistence. 한 사람의 실존(實存)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존을 다 빼고 essence만 보는 거죠.

철학사나 문학사를 서술할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약간 다른 문제지만. 즉 사람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이 있죠.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만나 감화를 받았고 폴리스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데아론은 왜 세웠느냐. 어떤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죠.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죠.

문학도 마찬가지죠. 랭보가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가 어떻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랬다는 등등.

그런 건 다 빼고 오로지 그 사람의 텍스트 안의 논리적인 구조, 개념적 정당성, 논리적 정합성,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죠.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實存主義)와 구조주의(構造主義)의 대립이죠. 실존에 포인트를 두는 입장과 structure, 구조에 포커스를 두는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Martial Gueroult(1891-1976) 가 있습니다.

이 Martial Gueroult 라는 사람은 철학사 서술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기존의 철학사 서술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텍스트를 철저히 구조적으로 분석한 사람입니다.

보통 구조주의 하면 레비토프(Levitov, 1835-1877)의 인류학, 라캉(Lacan, 1901-1981)의

www.artnstudy.com

정신분석학 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빼먹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Martial Gueroult 의 철학사도 구조주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Ordre de raison, 이성의 질서에 따라, 어떤 논리적 질서에 따라 철학사를 서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한 인간의 동기, motivation과 상황을 보는 것이 실존적인 입장이죠. 본질적인 입장이란 철학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에서, 즉 그것이 어떠어떠함에서 보는 입장이죠.

독일어인데요. Dasein은 영어로 existence. 존재를 표현하는 하이데거의 용어죠.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Sosein이에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essence에 해당하는 거지요.

박홍규 선생의 입장은 명백히 이 Sosein, essnce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철학사를 탈(脫)맥락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양반은 그 맥락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파내려 가서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박홍규 이 양반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학문은 주관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주관을 계속해서 투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물 자체를 보려고 해야죠. 일종의 objectivity를 중시하는 거죠.

가령 스토아학파라는 것은 윤리학파는 아닌데, 그것은 동기적 입장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스토아학파의 동기가 무어냐. 스토아학파가 이런 철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스토아 철학은 로마의 철학이죠. 로마의 철학. 가장 로마적인 철학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가장 미국적인 철학, 실용주의(實用主義). 가장 독일적인 철학, 관념론(觀念論). 이런 식으로. 가장 영국적인 철학, 경험론(經驗論). 물론 도식적인 것이지만. 이런 면에서 가장 로마적인 철학은 스토아학파죠.

그런 입장에서 로마라는 사회, 특히 로마 귀족들의 철학이죠. 그 사람들의 안심입명(安心立命) 이다. 그런 입장에서 스토아학파를 윤리학파라고 하는데. 이런 입장은 동기적 입장이죠. 동기에 포인트를 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철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플라톤 같은 경우엔 안심입명 같은 경우가 없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결과에 가서 차이나 날 수는 있겠지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철학은 철학을 하는 동기가 있겠죠. 수준차는 나중의 문제이고. 애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안심입명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도 당연히 그렇죠. 플라톤은 그럼 안심입명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www.artnstudy.com

우리가 어떤 철학을 볼 적에 그 사람 개인 및 그 사회를 고려해야 하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삶을 겪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등등.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고, 로마 귀족은 어땠는지. 명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명예롭게 죽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어떤 철학자를 얘기함에 있어 심리학과 사회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철학의 essence만 볼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느냐.

만약 두 개를 다 본다면 어떻게 같이 봐야 하는가. 그 관계가 무엇이고 비중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철학에서 특별히 두드려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로서 보지, 아테네라는 사회의 사상가로 보기보다는 이데아론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이해하고 평가할 적에 그 소설의 깊이가 떨어질수록 문학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예컨대, 마광수씨가 예전에 『즐거운 사라』를 썼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 작품을 우리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파듯이 할 것은 별로 없죠. 대신 한국 사회에서 그 소설이 어떤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냐가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이 있고. 문학적으로 얘기할 것이 많은 게 있죠.

예를 들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읽은 사람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나도 못 읽었는데요. 그것을 완독한 사람은 조이스의 전공자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 있지요.

그런데 칸트 같은 사람은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실제 칸트가 살적에는 칸트를 아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밖에 없는 거죠. 전 유럽에서. 예를 들어 당시의 볼테르 같은 사람은 볼테르가 나타나면 왕이 영접을 나갔습니다.

그 시절 칸트를 아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과 대학 동료들, 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은 볼테르를 읽고 있습니까. 다 칸트를 읽죠. 이 『율리시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사라』 같은 경우 60만부가 팔렸지만 『율리시즈』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도 힘들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外的)인 요소. 철학 외적, 문학 외적, 영화 외적. 이런 요소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것. 철학 자체, 문학 자체, 영화 자체.

이 요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굉장히 명확하게 대비되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즐거운 사라』와 『율리시즈』. 볼테르와 칸트 같은 경우는 굉

www.artnstudy.com

장히 선명하게 대비되는 경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잡하게 섞여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문제는 남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도 안심입명의 소리가 들어있고 플로티노스(lotinos, 205~270)도 그런 요소가 들어있죠. 그 요소가 강하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니까요.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플라톤과 전쟁」이라는 글이 있죠. 또 「플라톤과 허무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대목은 박 선생이 플라톤을 existence를 본 겁니다. 플라톤이 왜 그런 철학을 하게 됐는지를 본 것이고.

'왜 그런 철학을 하게 됐느냐'와 '왜 그런 철학을 하게 됐느냐'는 관계가 없다는 말은 지나친 말이지만 구분은 해야 되죠. 당연히 관계있죠. 하지만 구분은 해야 합니다. 워낙에 플라톤은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상이나 역사적 맥락이 아니라 철학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역사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항상 역사와 철학을 어떻게 관계 지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죠. 문학, 종교, 자연과학, 사회과학. 굉장히 많지만 가장 알맹이는 역시 역사와 철학이죠.

역사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것이죠. 역사책을 보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몇 월 며칠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등등. 거기서 추상을 하면 사회과학이 나오죠. 그것을 일반화하고 법칙화하고 통계화하면 그것은 사회과학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자연과학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추상적인 쪽으로 가면 철학이 되는 거죠. 가장 구체적인 역사와 가장 추상적인 철학. 그 사이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있는데요. 이 gap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와 철학을 양극으로 놓고 보는 것이 굉장히 좋죠.

플라톤의 경우도 역사가가 보는 플라톤은 다르죠. 철학자가 보는 플라톤, 플라톤의 철학적 사상을 파는 전공자의 입장과 역사가로서 플라톤을 보는 경우는 다르죠. 당시 아테네의 제도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말이죠.

플라톤을 굉장히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플라톤은 굉장히 보수주의자이고 굉장히 억압적이죠.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 의 시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보다는 이데아론을 보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겠죠. 상당히 복잡 미묘한 문제입니

www.artnstudy.com

다. 여기서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상 철학이 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는가는 질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 철학은 다른 학문, 수학이나 물리학과 다른가. 수학이나 물리학은 기준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실험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째서 철학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느냐.

▲ 철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울러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또 하나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문학과 철학의 관계입니다. 왜 철학은 특정한 지역에서 그렇게 발달했느냐는 거죠. 문학은 보편적이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있죠.

스페인 문학, 아르헨티나 문학, 남미 문학, 심지어 알레스카 문학 등. 어디 가도 문학이 있죠. 철학의 경우 굉장히 좁혀 말하자면 이것은 서구적인 겁니다. 서구라는 곳에서만 철학이 나오는 거죠.

물론 넓게 말하면 인도나 우리나라도 철학이 있죠.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좁혀서 말하면 이것은 서구적인 것입니다. philosophy라는 것은 서구, 특히 그리스의 산물이거든요.

설사 넓게 말한다고 해도 정해져 있죠. 알레스카 철학? 물론 넓게 보면 거기도 철학이 있겠죠. 그곳 사람들의 인생관이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철학적 체계를 갖춘 것을 보면 그리스, 중국, 인도.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철학은.

문학은 그렇지 않죠. 왜 문학은 그토록 보편적인데 철학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특히나 서구의 산물일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우리가 보는 맥락은 아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왜 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느냐.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예컨대 고대 철학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사람이 왜, 어떤 동기로 철학을 하느냐는 문제와 철학 자체가 갖고 있는 형태가, essence가 logical한 구조가 왜 다르냐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동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철학자의 동기와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동기와 목적을 달성하면 그 철학의 임무는 다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지적이죠.

만약 어떤 철학자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 철학의 의미를 동기와 목적에만 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 철학의 임무는 다하는 거죠. 그렇죠?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

www.artnstudy.com

교라든가 가치관과 같은 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의 철학인 것이죠.

그것은 맞다 틀리다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맥락에서, 내 맥락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 '난 예수의 말이 맞다고 믿어' '난 붓다의 말이 맞다고 믿어' 그런 철학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할 필요가 없지요. 답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철학자들이 하는 철학은 절대 그렇게 안 끝나죠. 애초에 그렇게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철학에도 끝나는 철학과 끝나지 않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끝나면 종교가 됩니다. 꼭 교회나 절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일종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종교관, 인생관.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만 달성되면 임무를 다하는 그런 철학이 있고, 그렇지 않고 끝없는 탐구를 요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류의 철학,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왜 그렇게 잘 끝나지 않고 왜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왜 달라지느냐. 왜 철학은 그렇게 단정적인 믿음으로 빠지면 안 되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의 소산(所産)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것, 초월하는 것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철학과 종교의 분기점인데요.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이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글로 쓰고. faculties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내에서 인간은 사고하죠. 물론 그 범위는 좀 확장될 수 있죠. 예컨대 인간이 현미경을 발명하면 안 보이던 것들을 볼 수 있죠.

faculties 가 변화한다는 전제 하에 어쨌든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faculty 를 넘어서 무엇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에 반드시 근거를 대야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하는 얘기에 근거를 대줘야 합니다.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미증(未證)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의 mythology, 신화라든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사실 현대 철학에 오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경우,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보는 패러다임과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에 있어서, 과연 그것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단절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나중에 가서 그와 같은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구분한

www.artnstudy.com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과 애초에 구분도 못하는 두리뭉실한 것과는 다른 거죠.

구분한 다음에 다시 합쳐 보는 것이 중요하죠. 구분해 본 적도 없이 뒤죽박죽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어쨌든 이 faculty, 지적 능력. 이것을 너무 좁게 잡아 버리면 지각(知覺)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피스트 같은 철저한 경험주의가 되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그것밖에는 못 믿겠다는 거죠. '네가 볼 땐 크지만 내가 볼 때는 작다. 진리가 어딨어. 너는 그렇게 보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너무나 이 faculty를 좁게 설정해 버려도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나 넓게 잡아도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어떤 종교적인 입장을 설파한 사람이 무엇을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어젯밤에 계시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faculty를 너무 넓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적게 잡아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너무 좁게 잡으면 편협하게 되어 버리죠. 그럼 당장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 유전자 같은 것도 다 거짓이 되어 버리죠. 우리가 언제 유전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개념이고 설정인 것이죠. 있는 것들의 존재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라는 딱 하나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발견한 많은 것들은 다 거짓이 되어 버리죠.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인간도 본 적이 없죠. 어떤 개인을 본 것이죠. 인간이라는 건 본 적이 없죠. 그러므로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죠.

그러므로 이 faculty를 도대체 어떻게 상정하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너무 사변적이 되고 지극히 편협한 경험주의가 되지요. 그래서 경험을 존중하되 그것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는 방식은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써부터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박홍규 선생 같은 경우는 저것(faculty)을 너무 좁게 보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넓게 보면 함부로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반면 너무 좁게 얘기하면 실증과학을 제외하면 다 주관이 되어버리게 되지요. 그것은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는 거지요.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 2교시: 능력과 우발성에 대한 논의들

www.artnstudy.com

▲ 우연성과 우발성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지적 능력이란 뭐냐. 능력이란 희랍 철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다움'이죠. 말의 말다움, 선생의 선생다움. 장군의 장군다움. 꽃의 꽃다움, 무엇다움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꽃에는 꽃의 본질이 있고 말에는 말의 본질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론의 문제지만 사회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직결될까요? 플라톤의 본질주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는 여자다움이라는 것이 있고 남자에게는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런 본질이, 남자에게는 이런 본질이. 그래서 남자가 예쁘장하게 하고 다니면 욕하고, 여자가 터프하면 욕하고.

그런 식의 생각에는 플라톤의 사상이 깔려 있죠. 그 반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꼭 남자는 그런 본질을 갖고 여자는 그런 본질을 갖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변화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이지,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죠.

아까 말한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요. 그 얘기죠. 그 기능을 플라톤을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energeia, 현실태(現實態). 지금의 에너지죠.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태(潛在態)와 어떤 구분이 있는지는 아시지요?

현실태가 energeia죠. energeia는 en+ ergon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function 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려면, 말이 말다우려면 말의 기능을 해야 하죠.

그럼 말이 기능을 하려면 말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말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 능력이 dynamis입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dynamics 라는 말이 있죠. 동력학. 평소에 얘기할 때도 다이나믹하다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뜻이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원래 dynamis는 그리스어로 faculty,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현대어로 하면 potentiality 가 되지요.

플라톤의 사유는 플라톤만의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epistem 입니다. 모든 사고를 dynamis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 사회를 출발시키는, 자신들도 모르는 출발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dynamis입니다. 박홍규 선생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www.artnstudy.com

능력은 희랍어로 dynamis 이다. dynamis 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가능성에는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다. dynamis 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실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반드시 실현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神)이죠. 신이 어떤 가능성을 띠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된다. 그것은 신이 신이 아닌 거죠. 신한테는 가능성=현실성이어야 하죠.

신에게는 가능성이란 범주가 없어요. 왜요? 신에게는 possibility가 있으면 그것이 곧 actuality 인거죠. 신이 만약 possibility를 갖고 있는데 actuality 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신이 아니죠. 서양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신은 possibility=actuality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은 중세철학에서 순수 현실태라고 합니다. pure actuality인 겁니다. 신이 아닌 모든 존재는 possibility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항상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고 그것은 동시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우연성은 contingency를 쓰죠. contingency 의 반대말은 뭡니까. necessity이지요. necessity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contingency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contingency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발성이라고 번역합니다. 프랑스어에 hasar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번역하고 contingency는 우발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발성이라는 말은 현대과학에서의 우연과는 다르거든요. 논리적인 우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책에 나오는 우연성은 모두 contingency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눈이 두 개라든가 직립보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인간의 eidos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necessity입니다. 물론 necessity라는 말은 아주 복잡해서 끝이 없지만 보통의 현대적 의미에서는 필연이지요.

희랍철학에서는 필연의 의미가 달라서 골치 아프지만 우선 지금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인간이니까 직립하고 말하는 거죠. 예컨대 곱슬머리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곱슬머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곱슬머리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은 우발성이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가 necessity이고 어디까지가 contingency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요.

www.artnstudy.com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서 태어났지요. 그것은 우발성이지요. contingency에요. 그런데 만약 과학이 엄청 발전해서, 모든 것을 다 추적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필연이겠죠.

아주 심하게 말하면 우주 탄생까지 가겠죠. 물론 불가능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참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죠. 애초에 우주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겠죠. 무(無)가 아니라 존재하잖아요. 이것은 필연인가, 우연인가.

아주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이 우연성, contingency라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dynamis를 갖고 있어도 그 dynamis가 백퍼센트 실현되는 것이 아니지요. 즉 우발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두고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의 우연이란 우리 일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사위를 굴렸더니 숫자가 잘 나왔다는 식의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logical한 우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fact가 우연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 남자고 하필 여자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우연입니다. contigency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일상적인 것은 우연이라고 하고 이것은 우발성이라고 합니다. 이분(박홍규)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우발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었느냐, 개연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연이라는 말을 쓴다.

어떤 dynamis가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었다. 그럴 적에는 그 능력이 얼마나 발휘되었느냐. 혹은 개연성이 얼마나 있느냐. 개연성은 약화된 necessity이죠. 약화된 필연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 %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우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라는 말이 나왔죠. degree.

우리가 존재론적인 사고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degree 라는 개념입니다. 정도로 본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도로 보지 않고 끊어서 볼 때는 불연속으로 보는 겁니다.

www.artnstudy.com

영어로 how much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degree죠. 연속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책상에 무엇을 많이 쌓으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많은 정도인지 알 수 없죠. degree.

예를 들어 코끼리와 인간. 이것은 불연속이죠. 자고로 우리가 고전적인 틀을 놓고 볼 때면.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르죠. 하지만 고전적인 틀로 보면 불연속이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degree로 보느냐, alternative로 보느냐죠. alternative는 양자택일이죠. 그러나 degree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러냐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dynamis라는 것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실현된다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또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필연이지요. 필연은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필연이 아니라 그냥 가능하다는 것은 가다가 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dynamis라는 것은 가다가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고 가다가 길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연성이 따르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빗나갈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성격이 능력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가능성은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고, 무엇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말은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고 그것은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뒤따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부정에 대한 가능성이죠.

존재라는 말과 부정이라는 말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앞의 존재는 무엇이 될 가능성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안 될 가능성인 거죠. 극한치에 가서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며 그럴 때 그 부정의 가능성은 우연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정과 존재 사이, 되는 것과 안 된 것 사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있는 것은 alternative죠.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흔히 하는 말로 모 아니면 도. 그것 말고도 얼마나 되느냐는 의미도 있죠.

다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까진 되었다. 그것은 부정과 존재 사이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 방향도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도차와 방향은 구분해야 합니다.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떤 것이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까지 실현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동시에 다른 곳

www.artnstudy.com

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direction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degree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가다가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가능성이라는 말은 경향(傾向)이라는 말과도 연관됩니다. tendency.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일정한 방향성을 머금고 있는 것을 무어라 하죠? 그것이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 tendency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흥미로운 경우죠. 나중에 베르그송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가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는 정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요소가 작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때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연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가능성을 쓴다. 한 사물이 가능성을 통해 나타날 때에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근사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perfect하지 않다는 거죠. perfect라는 말 자체가 중세 철학 용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요. 어디에 쓸까요. 당연히 신의 개념에 썼겠죠.

perfect라는 말은 원래 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홍규 선생이 말하는 요점은 뭡니까. 인간의 faculty는 절대로 perfect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도가 있고, 경향이 있고 우연이 있기 때문에.

▲ 결정론에 관하여

희랍어로 dynamis라는 것은 영어로 active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potential 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ynamis라는 것은 무엇과 대립하냐 하면 결정론(決定論)과 대립합니다. 결정론을 좁은 의미로 쓰면 근대 결정론입니다. 근대 과학에서 말하는 결정론.

근대 물리학에서는 실제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우주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적어도 물체의 세계는. 무엇을 알면? 위치와 운동량만 알면. 그것만 알면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서기 2억 3천 329년에 명왕성이 어디에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근대 의미의 결정론과 고,중세 의미의 결정론의 성격은 완전 다르죠. 고,중세 의미의 결정론은 무엇입니까. 신의 섭리이지요. 운명, 섭리, 숙명, 팔자. 모두 고, 중

www.artnstudy.com

세적인 의미의 결정론입니다.

칼뱅(Calvin, 1509-1564)의 경우는 예정설(豫定說)이잖아요. 그런 의미지요. 신의 섭리니 하늘의 뜻이니 천명(天命)이니 팔자니 숙명이니. 이런 거죠. 근대의 결정론은 어떻습니까. 과학적 결정론이죠. scientific determination이죠.

고대 결정론이든 근대 결정론이든 이 dynamis라는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요. 인간 또는 다른 존재가 가진 dynamis라는 것은 실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갈라질 수도 있고 우연이 개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이런 dynamis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도 perfect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결정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과 현실적 능력, dynamis에서 출발하는 사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어떤 철학 활동도 완벽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차가 나는 겁니다. 플라톤이나 보통 사람이나 가능성은 거의 같죠. 다를 수가 없죠. 플라톤은 그것을 굉장히 실현을 잘 시킨 것이고 보통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왜 그렇게 철학이 갈래가 다양하냐는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가 dynamis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다양한 경험론적 사고

질문: faculty의 범위를 더 넓게 잡을 경우 포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철학사를 보는 한 방식인데요. 서양 근대 철학자들은 고대의 헬레니즘 철학을 부정함으로써 나오잖아요. 헬레니즘과 중세의 히브리즘이 결합된 것이 서양의 전통학입니다. Traditio.

근대 철학자들은 이것을 비판하는데요. 그것을 비판하는 실마리가 경험론(經驗論)입니다. 영국 경험론. 모든 것은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흄은 더욱 극단적이죠. 이때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experience라는 것은 거의 perception이죠. 지각(知覺).

경험주의자들이 이 경험의 의미를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한 것이 독일의 관념론(觀念論)입니다. 경험이 direct하기만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www.artnstudy.com

근시안적인 것이다. 그보다는 주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본 주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칸트죠. 또한 경험이라는 것을 실제 인간이 살아온 역사적 지평 속에서 시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헤겔입니다. history이죠.

이것이 경험주의의 1단계와 2단계입니다. 3단계가 돼서, 더 나아가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딜타이(Dilthey, 1833-1911) 같은 사람의 이른바 erleben 이죠. 그 다음에 후설(Husserl, 1859-1983)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상학적 경험이 나옵니다.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볼까요? 딜타이나 마르크스 같은 19세기 철학자이 말하는 erleben, 역사적 체험 같은 것. 그것은 자연과학을 모델로 한 경험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자연과학에만 국한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한 것이 딜타이인데요. 인간 삶 전체의 풍부함 속에서, 그 의미 속에서 생생하게 보아야지 자연 과학자들이 세상을 인식한 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헤겔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나 그것을 결정론적 방식으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인간 개개인을 거대한 역사의 부품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딜타이가 말하는 erleben이라든가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적 경험.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생생한 경험이 아니라 자연과학은 이것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게 하지 말라는 것이 현상학적 경험입니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년~1910)나 듀이(Dewey, 1859~1952)가 말하는 경험.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베르그송이 말하는 직관.

근대적인 지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간화해서 본다는 겁니다. 시간을 빼고 동일성만을 포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1945)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대 지성을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본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이항대립적인 인위적 분류이고. 사실 그런 이항대립 이전의 것들을 봐야 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사건(事件),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너무 거칠게, 빨리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에 대한 새로운 확충입니다. 독일 관념론이 영국 경험론을 많이 극복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근대적인 이성의 틀에 갇혀

www.artnstudy.com

있기 때문에 이런 위의 내용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 달라요. 공부해보면 복잡한데. 어떤 시대적인 맥락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근대 과학이 세계를 너무 법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항 대립적으로 공간화해서 보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대응이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들뢰즈 같은 경우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첫작품이 누구에 관한 겁니까. 흄에 관한 겁니다. 그 사람도 이런 경험주의를 견고하게 지킨 사람이죠.

그래서 경험주의를 위시하되, 너무 큰 비약을 하지 않되, 너무 편협하지 않게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www.artnstudy.com